



# 포이에미[예수교회] 가정예배 순서지

찬양 |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그의 생각)

기도 |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서로 더 사랑하고 감사하며 남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의 생각 MR

말씀 읽기 | 요한복음 12:44~48

**[개역개정]** <sup>44</sup>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sup>45</sup>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sup>46</sup>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sup>47</sup>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sup>48</sup>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쉬운성경]** <sup>44</sup> 그 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sup>45</sup>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sup>46</sup>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sup>47</sup>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것은 나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왔기 때문이다. <sup>48</sup>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실 분이 계시다. 내가 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1.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소리 내어 2번 읽습니다.
2. 말씀이 마음에 남도록 천천히 눈으로 1번 읽습니다.
3.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정은 쉬운성경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질문나눔

1. 오늘 읽은 말씀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구절은 무엇인가요?
2. 그 구절을 고른 이유에 대해 서로 이야기 나눠봅시다.

삶의 이야기 |

1. 내 마음을 밝게 비춰주는 '빛'은 무엇인가요?
2.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일상에서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축복 | 자녀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읽어주세요.

마음이 어두워질 때마다 빛이신 예수님이 ( )이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렴!

마침기도 |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삶의 빛으로 오셨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막막할 때 어둠 속에 머물지 않게 잡아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바른 기준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예수님처럼 먼저 사랑하고 구원하는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밝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포이에미[예수교회]

## 가정예배 순서지

찬양 | 나는 예배자입니다

기도 |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서로 더 사랑하고 감사하며 남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MR

말씀 읽기 | 요한복음 13:1, 4~5, 14~15

**[개역개정]** <sup>1</sup>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sup>4</sup>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sup>5</sup>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sup>14</sup>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sup>15</sup>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쉬운성경]** <sup>1</sup> 유월절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sup>4</sup> 그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sup>5</sup> 예수님께서서는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sup>14</sup> 내가 선생과 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sup>15</sup>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 준 것이다.

1.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소리 내어 2번 읽습니다.
2. 말씀이 마음에 남도록 천천히 눈으로 1번 읽습니다.
3.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정은 쉬운성경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1. 오늘 읽은 말씀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구절은 무엇인가요?
2.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삶의 이야기 |

1. '발을 씻겨 주듯' 도와주거나 섬기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2.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라는 말씀을 우리 집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예: 집안일 돕기, 따뜻한 말 한마디 등)

축복 | 자녀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 )아,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주변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길 축복해!

마침기도 |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사랑은 '낮아짐'과 '섬김'에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먼저 손을 내밀고 봉사하는 가족이 되게 하소서. 교만한 마음은 버리고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가정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